

북한 통일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로 가는 길

통일부 통일교육원

차 례

부산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동일을 향하여/최미소랑 -----	9
	중등부:민들레 씨앗/황정은 -----	10
	고등부:하나가 되기 위하여/손정수 -----	12
산문부문	초등부:이름모를 친구에게/우길정 -----	14
	중등부:그 날이 오기를/김정운 -----	16
	고등부: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는 그날/전예지 -----	18

인천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남과 북은 우리민족, 한민족/정희권 -----	23
	중등부:재 3땅굴/안균희 -----	26
	고등부:향수/김하나 -----	28
산문부문	초등부:통일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여인재 -----	30
	중등부: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박지혜 -----	32
	고등부:부치지 못한 편지/곽재호 -----	34

광주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물어 봤어요/유시화 -----	39
	중등부:나는 호랑이로소이다/김경은 -----	40
	고등부:빌아래 하나되어/박유나 -----	41
산문부문	초등부:일곱 손가락/나보람 -----	42
	중등부:북으로 가는 소들과 똥돌날이/이경은 -----	44
	고등부:우리는 하나/한현정 -----	47

청주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우리는 하나/김윤선 -----	53
	중등부:흔적/박아름 -----	55
	고등부:태극기/이인혜 -----	57
산문부문	초등부:학습 발표회/장현희 -----	59
	중등부: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유진 -----	62
	고등부:하나라는 이유로/백소라 -----	64

제주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할아버지 적금 통장/조지연 -----	69
	중등부:님이 오시면/김영희 -----	70
	고등부:엽원/박지혜 -----	72
산문부문	초등부:할머니의 보물/문지은 -----	74
	중등부:세계속의 분단한국/김민혁 -----	76
	고등부:통일을 부르는 소리/김윤정 -----	78

부산북한관

시부문

초등부

통일을 향하여/최미소랑 ----- 9

중등부

민들레 씨앗/황정은 ----- 10

고등부

하나가 되기 위하여/손징수 ----- 12

산문부문

초등부

이름모를 친구에게/우길정 ----- 14

중등부

그 날이 오기를/김정운 ----- 16

고등부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는 그날/전예지 ----- 18

통일을 향하여

최 미 소 랑

온천초등학교 5학년

창에
커튼치듯
칠조망
친땅

정주영 할아버지
'통일의 소' 물고
올라 가셨네

북한에 준
통일의 암소
새끼 낳을 때

남한 임마 소
북한 송아지
하나 되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꽃피워
칠조망
걸어내고

통일의 기쁨
누려야지

민들레 씨앗

황 정 은

금정여자중학교 3학년

자유의 공기로 가득한 들판
여기에 한송이 민들레가 피었다.

잔혹한 일제의 군화발에도
6·25의 육중한 탱크바퀴에도
모질게 살아 남은
한송이 민들레

이제 겨울도 다 이겨내고
너의 계절이 왔단다, 민들레야

곱게 핀 민들레 진 자리에는
자유의 공기로 자란
자유의 씨앗들이
날아오를 시간만을 기다린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다같이 '후우~' 불어 주면은

민들레 씨앗은 남풍을 타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
휴전선 넘어
북으로 북으로

자유의 씨앗이
북녘땅에 뿌리를 내리면
내년 봄엔 북녘땅에도
자유의 민들레가 만발할텐데

이제는 마음 모아
자유의 씨앗을 불어 줄 시간
힘모아 마음 모아
북녘에도 자유를
심어 줄 시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손 정 수
등인고등학교 2학년

서러운 계절의 끝에는
흩어져 가는 달빛만이 얇게 드리웠다.

무명(無名)의 표탑 아래로
바람은 아릿한 비명처럼 불어오고
아리잠직한 들꽃 한 송이
작열하는 포화를 따라 좇볼처럼 떨다가
드디어는 한 가닥 초연으로 스러지는데,

어찌하여
굽죄인 우리의 어깨는
검붉게 타오른 철조망 앞에서
외람된 조기(弔旗)마저도 되지 못하고
어떠한 진단도 용납하지 않은 채
바닥없는 절망의 늪 속으로 잠기어 가는가

그래도 그 어느 날엔가는
말라버린 꽃잎만이
묵묵히 침전해 가던 시절도
마침내는 식어 내리고,

암암히 솟은 영마루-
그 모진 절정을 꿰뚫는
외침이 되어
봄은
청태에 파묻힌 옥개석 위로
십자군처럼 돌아올 터이니

이제 우리는
부단한 진공(眞空)의 흐름 속에
고단한 몸을 누이고
가시나무새의 목땀한 절규를 위하여
다가올 봄을 노래하여야 한다.
진정한 가슴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눈물처럼 속살거리며 직서드는 봄비만이
스러져 가는 한 송이 꽃의 이름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름모를 친구에게

우 길 정

해강초등학교 6학년

안녕? 난 해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길정' 이라고 해. 지금 난 '로동신문'도 있고, '민주조선'도 있는, 북한에 대한 자료가 아주 많이 있는 곳에 와 있어.

내가 왜 여기에 왔냐구?

너에게 잘 쓰진 않았지만, 이 편지를 보내 주기 위해서야.

북한 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너무 많이 봐서 기회가 있으면 꼭 한 번 편지를 쓰고 싶었거든.

정말이야!

나는 지금도, 아니 잘 때에도, 북한 아이들 생각을 해.

지금 우리 남한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북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북한 사정을 조금은 알아.

지금 내 옆에서 열심히 글을 쓰는 아이들을 보니 북한에 있는 아이들 몇 명과 바꾸고 싶어.

그래서 모두 우리집에서 살게 해 줄거야.

우리집이 그리 크고 대단하진 못하지만, 너희들과 꼭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북한말과 우리말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북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 거잖아.

내 욕심이 좀 지나치지?

지금 너희를 도우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나를 도우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너 있잖아 백두산이랑 금강산 가 봤니?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봉. 불수록 아름답고 신비 하구나"

이 노래를 며칠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금강산에 일만 이천봉이나 있는지 궁금

하거든? 백두산의 천지두 …….

가보지 않았으면 미안해 할 것 없어. 참고로 난 통일이 되면 너와 백두산, 금강산을 꼭 볼거야.

다행히도 우리 나라에서 너희 나라의 어려움을 도와 주고 있고, 이번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소 500마리나 보내 주셨잖아!

이 일을 계기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해.

통일이 안되더라도 소를 튼튼하게 잘 키워서 번식시켜.

그래서 각 가정에 송아지 1마리씩을 꼭 가졌으면 해.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해서 미안해.

만약 나도 크면 '정주영' 회장님처럼 북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아직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우리 한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야.

친구야! 우리 꼭 통일을 이루어서 다시 만나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할게.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1998년 6월 20일

- 다시 만나길 기원하는 영원한 친구 우길정 씬 -

그 날이 오기를

김 정 운

모라여자중학교 3학년

하나에게

안녕. 하나야.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정운이야.

벌써 너와는 두 번째 만남이구나. 잘 지냈니? 나도 잘 지냈어.

통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구나. 통일이 된 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더 좋을텐데 좀 아쉬워.

하나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야.

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 함께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정○○ 회장이 소 500마리를 북한에 끌고 간다는 보도가 나왔어.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 우리 가족은 '이제 북한과 관계가 좋아져 혹시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실례임으로 뉴스를 지켜보았어.

사실, 통일에 대한 우리 가족의 마음은 남다르거든. 나는 6·25가 일어난지 몇 십 년이나 지난 뒤에 태어나서 아무 것도 모르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내게는 큰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6·25 그 난리통 속에 잃어버리셨다고 해. 그리고 아직까지 서로의 생사도 모르는 채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요즘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명절만 되면 큰아버지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곤 하셔. 그리고는 항상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죽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봐야 할텐데……" 하고 말씀하신단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나 또한 콧등이 시큰해져.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어떠실까? 우리가 짐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파 하실거야. 꿈에서도 큰아버지 생각에 마음 편할 날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기저기서 대포 소리가 들리오고, 눈앞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 생각만 해도 온 몸에 소름이 돋치지 않니?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을까?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렇게도 큰 상처를 남겨야만 했을까? 그것도 피를 나눈 형제끼리 말이야.

하지만 나는 통일될 그 날을 믿어 의심치 않아.

지금은 50여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서로를 경계하며, 총부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한 민족 한 겨레인 것을……. 우리는 지난 날의 모든 잘못을 잊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이제 이 세계에 둘로 나뉜 나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모두들 통일을 하고, 심지어 서로 다른 나라끼리도 국경을 없앤다 화폐를 공동으로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니? 머리색도, 눈동자색도 다른 사람들과는 마음만 있으면 만날 수도 있는데 한 민족 한 겨레에게는 총부리를 겨누는 채 서로를 경계하고 있으니 우습다는 생각마저 들어.

세계지도에서도 겨우 찾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또 반으로 갈라 놓았으니 어떻게 선진국,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니? 나는 우리 나라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꼭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오랜 세월로 인해, 겉모습도, 생각도 서로 달라. 그래서 통일을 한다면 당장은 혼란스러워 지고, 오히려 통일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텐데 하는 후회를 할 지도 몰라. 그렇지만 통일이란 언젠가는 풀어야하는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 숙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나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도 무리일거야. 그러나 독일처럼 하나씩 하나씩 영킹 매듭을 풀어나간다면 결국 통일이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부강한 우리 나라를 꿈꿀 수 있을거야.

하루라도 빨리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 너도 그렇겠지?

그럼, 통일 될 그 날을 꿈꾸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

다음에는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안녕. 몸 건강히 잘 지내.

1998년 6월 20일
남한의 정운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는 그날

전 예 지

부산서여자고등학교 2학년

얼마 전, 할머니의 제삿날을 앞두고 분주하게 마산 큰 택으로 떠나실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께서도 함께 가시는지 궁금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께서 함께 가시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작년처럼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제삿날을 혼자 쓸쓸히 보내셨다.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4년 동안 어머니를 제외한 우리 식구는 친가 친척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후 할아버지의 부양문제로 어른들께서는 몹시 다부셨고,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연락을 끊은 채, 아니 잊은 채로 살아왔다. 벌써 4년째다. 명절이나 집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어른들이 참 원망스러웠다. 나를 좋아해주던 사촌오빠며 배가 많이 튀어나온 「배불뚝이」 사촌동생 모두가 그립고 보고 싶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속으로만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움을 달래며— 친척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 못지않게 친지들을 그리워하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

하지만 4년이 아니라, 반세기동안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이산가족에 비하면 나의 그리움은 모래사장의 깨알같은 모래에 불과하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과 그리움이라 하였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지금 우리사회의 귀퉁이마다 저마다의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문 후에 건강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 봐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동일에 대한 갈증으로 지쳐있다. 그 갈증을 해소시킬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다. 진정한 평화와 화합으로써의 통일, 그것이 우리의 갈증의 요인이며 또한 갈증을 해소시킬 열쇠인 것이다.

지난 수십 년동안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적십자회담이나, 북한에 쌀보내기 운동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전개해왔다. 허나,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아직까지 남한은 지옥의 땅이라고 믿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고도 슬프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념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시기에 통일을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소중한 것은 북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아닐런지. 물론 경제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집권층과의 교류는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 주인인 양국 국민끼리는 함께 공유해온 무엇인가가 없다고 본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풍습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부문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그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문화교류이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남북 문학작품의 교류」라고 생각한다. 문학작품에의 자유가 보장된 남한과 혁명적 기상과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골자로 하는 북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지닌 문학작품을 접한 국민들이 과연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없었는 당연하다. 문학작품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남한은 북한의 그릇된 사고 방식을 진면흡수하는 주민들을 이해하고, 북한은 새로운 방면의 문학을 접해서 우리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남북이 진실로, 진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여름을 넘기고 나면, 곧 추석이다. 이번 추석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반쪽 식구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임을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그리움에 울부짖었던 어두웠던 기억을 한순간의 반가움과 눈물로 지워버릴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우리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임을.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는 그 날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고, 이산가족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고, 원망섞인 울음을 문어버릴 수 있을 것이며, 오랜 지침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는 그 날에.....

인천북한관

시 부문

초 등 부

남과 북은 우리민족, 한민족/정희권 ----- 23

중 등 부

제 3땅굴/안근희 ----- 26

고 등 부

향수/김하나 ----- 28

산문 부문

초 등 부

통일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여인재 ----- 30

중 등 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박지혜 ----- 32

고 등 부

부치지 못한 편지/곽재호 ----- 34

남과 북은 우리민족, 한민족

정 희 권

봉수초등학교 4학년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
한 땅덩어리, 한겨레
얼굴도
피부도
언어도
다 같은데
오고 가지 않은지 50년이 되어간다.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임진각에
하루종일 앉아서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형제 이야기도 하고
친지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하고
밤이 되어도 돌아갈 줄 모른다.

북한 동포들은
배가 고파서
풀뿌리도 캐서먹고
소나무 껍질도 벗겨먹고
그것도 없어서

굵어 죽어가고 있다.
양상한 뼈에
땡그란 눈만 깜박깜박 거리던
북한 친구들의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는다
생각할수록 슬퍼지고 안타깝다.

김정일과 그의 공산당 간부는
살이 통통하게 붙어있다.
김정일은 진짜 사람일까?
인간 탈을 뒤집어 쓴
악마가 아닐는지!

무기만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킬 생각만 하는
악마인간!
하루라도 빨리 평화의 문으로
걸어서 나오라.

정주영 할아버지가
남한 소 500마리를
북한으로 몰고 가신다.
제약회사 사장님이
제약회사도 지어주고
교수님이 북한에
기술대학도 지어주신다.

북한동포들에게
농사짓는 기술도 가르쳐 주고
곡식이 잘 자라게
비료도 줄 것이다.
북한 동포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밑받침이 되어주자.
우리모두가…….

보인다. 보인다.
통일이 보인다.
꽁꽁 숨어있던 통일이
가물가물 보인다.

동일로 가는 길은
우리 모두의 커다란 숙제
대한민국 힘내라!
통일 화이팅!

제 3땅굴

안 균 희

가정여자중학교 3학년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자
어둠이 확 밀려왔다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
어둠 속에 작은 등불만이
간간히 나를 지켜줄 뿐이다.

까끌까끌한 고무 바닥
습기찬 더운 공기
나를 싸고도는 돌벽마저
낯선 기분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뽕!” 하고 굴 안에 울려 퍼졌을
예전의 그 총소리에
노란 페인트 자국 돌 구멍이
으르렁거렸다.

얼마나 더 가야할까,
이 끝에서 만날 내 친구는
어떤 아이일까.

순간 내 꿈을 싹뚝 잘라버리고
서 있는 총.

작은 문만한 구멍 밖은
주황색 두려움으로
나에게 소리쳤다.
“여기서부터 북한이요!”

잘라진 꿈으로 뒤돌아섰다.
다가섰던 마음이
뒤로 뒤로 팔려서기 시작했다

다시 오르는 길.
눈 아픈 어둠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다.
어둠 밖에는 파란 하늘이 있기에
주지않을 수 없는 길

저 너머 주황색 두려움이
노란색 페인트 자국이
아른거리는 가운데

파드득! 비둘기인양
한 줄기 빛이
내 눈앞에 날아들었다.

저 멀리 어둠을 가르고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드는
한 줄기의 빛

좌절된 나의 꿈을 어루만지며
저 빛은 당신의 꿈 통일을
말해주었다.

향수

김 하 나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그날이 올 양이면
애달픈 가득한 붉은 달을 이제 그만 잊고

새로 지은 옷을 입고서
일생 하고팠던 유람을 떠날게다.

그 좋은 날에는
별도 좋아 내 홀로 떠난다 하여도
외롭지만도 않다
아무런 미련없어 좋을게다.

그날이 올 양이면
보고팠던 형 아우찾아
옛집에서 모두 한데모여 살게다.

아무도 모를 그리움 짙어지고 살아 온 한평생
이제는 그 얼굴들도 문득 문득 잊혀질까하니
이제는 그리움도 아닌 외로움이라
그 작은 목구멍 타고 오르내린 그 큰 분노도
이제그만 식었을게다.

그날이 올 양이면
킴킴한 광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녹슬은 곡괭이 찾아 들고
그 좋았었던
옛 고향 찾아 농사를 지을게다.

반 백년
이제껏 묻어왔던 응어리일랑은
반만년에 비하여 티끌일까 하니
이제는 그를 잊고
그 좋았었던 시절을 찾아갈게다.

그토록이나 어두웠던 하늘에
한 하늘이 연릴 때쯤
빛과 어둠이 하늘에 공존해 있을
그 짧은 시간동안
일그러진 작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앉아
굳게 걸어둔 빗장을 거두고 문을 열어
푸른 하늘에서 대지를 비출 태양을 향해
두 팔을 벌릴게다.

통일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

여 인 재

조동초등학교 6학년

며칠 전,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어머니께서 부르셨다.

“잠깐 나와서 이것 좀 봐라”

텔레비전을 보라는 반가운 소리에 후다닥 나와 보니 화면 멀리 북한 아이들이 보였다. 두만강가에 나와 작은 나뭇가지에서 무엇을 따기도 하고 흰 비닐을 물에 담가 빨기도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쪽에서는 아저씨 둘이 그물을 치고 있는데 경비원이 옆에서 있다가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는 듯이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걸모습으로는 요즘 식량난이 심각하며 기아 상태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한 아주머니가 어린 자식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와 중국에 숨어 살면서 말한 그 한 마디는 정말 가슴을 아프게 했다.

“굶어 죽으나 강에 빠져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님네까?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들도 숨어 사는 긴장감 속에서 오직 살기 위해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렇게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북이 분단된 지도 어느덧 50년이 넘었다. 부모 형제가 떨어져 살고 있으나 편지조차 왕래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사회 제도 속에서 생활하여 생각마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핏줄을 가진 민족이며, 부모 형제들이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전부터 남북한은 통일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여 왔지만 편이하게 다른 생활 환경에 처해 있는 남북이 단일 국가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통일 세대인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고, 자유와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내세우는 주장이 달라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열심히 일하고 지축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여행의 자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 등. 그런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 아니라면 더 큰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자유가 있는 통일이여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을 부르짖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통일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믿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북한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우리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식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귀순해 오면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한다. 생각이나 생활모습에서 다르게 살아온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통일 후에 서로 차이집에서 올 수 있는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통일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더 아껴 쓰고 절약하여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요즘에는 나물 캐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보이고,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해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인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어 오손도손 먹을 것도 나누어 먹고 입을 것도 나누어 입을 수 있도록 기초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된 것이다.

통일이 된 후의 한반도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는 바로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했는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

부모 형제가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 슬픈 비극이 끝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박 지 혜

구산중학교 2학년

요즘 시대를 일컬어 6·25 이후 최대 국난을 겪고 있다고들 한다.

서울에서는 4집 중 1집 꼴로 실직자가 발생하고 하루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는 IMF시대.

도대체 6·25 전쟁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길래 지금 사회와 비교할까?

물론 초등학교 때 약간 배우기는 하였지만 겪어보지 못한 나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있는 백과사전과 국어사전을 살펴보았다.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기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싸움

아마 세상 어떤 전쟁보다 비극적인 전쟁이 아닐까 싶다.

머칠 진 한 방송국에서 '24시간 기아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북한 아이들의 굶주린 생활을 조금 느껴보고자 24시간을 굶는 내용인데 몇 몇 아이들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하루 굶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몇 일 동안을 어떻게 굶으면서 생활할까?

도시락 반찬에 멸치 김치 시금치 같은 채소만 싸주시는 엄마께 투정도 많이 했지만 국수 한 그릇에 감사히 생각하며 깨끗이 먹는 아이들을 보자 마음 한 구석이 저러왔다.

또 북한 아이들을 돕자는 MC들의 말과 진화 한 통화에 2000원씩을 보탠다는 안내에 무려 100만 통에 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아무리 인심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깊이 새겨있었나보다. 그냥 써버리게 되는 2000원이라는 작은 돈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 4명의 한달 식량이 된다는 말에 놀라고 또 놀랐다.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만이 나라를 위한 일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나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불우이웃을 돕는다면서 많은 돈을 기증하고 자기가 마냥 자선사업가인양 위세를 떠는 사람과 차지만 진심으로 우려나오는 마음에서 돕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옳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두 번째 사람을 택하겠지.

이번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정성어린 마음이 하나 둘 모여 큰 사랑을 만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 생각해준다면 통일은 어느 일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동생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대답 하는 말, “난 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 예상 밖의 대답에 이유를 물었더니 북한은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니 남한에서 도와줬자 손해라는 것이다.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길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나도 한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국사시간에 선생님께서 ‘통일에 관한 의견 써오기’라는 숙제를 내주셨었다. 난 그 때 동독과 서독을 예로 들면서 의견을 써 내려갔다. 통일 전에 서독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동독을 많이 도와주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상황이 다르지 않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때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느낀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하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을 것인데…….

미루고 미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남과 북은 다른 나라처럼 말과 글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방식이나 생각까지도 달라져 통일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고 또 광개토대왕처럼 씩씩하게 한반도를 지켜온 훌륭한 분들을 조상으로 둔 우리가 무슨 이유로 충을 겨누며 생활하여야 할까?

아직까지도 북에 있는 가족을 잊지 못하고 생사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는 한 할아버지를 보며 통일은 빨리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써 어떻게 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할 때라고 생각한다.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다스리는 냉정한 현실에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절약 저축을 해야한다. 통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의 원 개념인 ‘한데 뭉치어 하나가 됨!’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치지 못한 편지

곽재호

인향고등학교 3학년

내게는 2층짜리 자그마한 서랍이 있다. 거기엔 나의 단상을 찍은 메모나 누군가에게 보내려 하다가 미루어 둔 편지가 있다. 며칠 전 서랍을 열었다가 눈에 띄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받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북녘 어디엔가 살고 있을 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형님께

안녕하셨습니다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음은 어찌된 이유일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헤어져 타인이 되어버린 느낌으로 살아왔다는 반증이겠지요. 말부터 사고방식까지 남쪽은 너무나 다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형님이 계신 곳까지 마치 멀리 떨어진 나라처럼 생각하고 싶지는 않군요. 아마도 우린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신 후 자유로를 통해서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집에 도착해서서 줄곧 “내가 걷는 속도로만 가도 사흘이면 내 고향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텐데……”.

하시면서 못내 씩씩한 미소를 짓곤하세요. 그럴 때면 가끔 우리 민족이 만들어 온 역사를 원망해보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거대한 조류를 타고 흐르는 역사 속에서 6척도 안 되는 내 작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막막한 느낌을 감추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예진보다 많이 나아져 우리 민족의 역사도 화합하는 방향으로 걸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한 달 후에는 LITTLE ANGELS라는 우리의 귀여운 동생들이 형님께서 계신 곳에 공연을 하러 간다더군요. 남쪽에서도 북쪽 사람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 내심 흐뭇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남한에서 큰 홍수가 났을 때 북한에서 쌀

이나 이불 등 생필품과 전자제품을 보내주셨다는 말을 어디선가 전해 듣고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신감했었지요.

그렇게 서로에게 인정을 베풀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남북이 요즘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지요. 형님 계신 곳도 무척 어려운 것만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INTERNET에서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고 여러 자료를 접해 보니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작년에 '기아체험 21시'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물과 그 밖에 인체에 꼭 필요한 것만을 섭취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인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상황이 지금의 북한의 모습이라니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형님! 그런데 북한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잠수함과 여러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남한에 몰래 들어오기도 하고 정보를 엿듣기도 합니다. 물론 형님같은 평범한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 않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 섬섬함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형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구석기부터 넓디넓은 요동반도에서 제주도까지 호령하던 삼국시대, 그 후 줄곧 서로 도와가며 살아왔고 1910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을 때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며 독립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하던 독립이 이루어지자마자 이념 대립으로 등돌려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가 되었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기에 둘로 갈라져야 했던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가슴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때가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야만 합니다. 한때는 통일이 되어 러시아, 중국과 활발한 교류와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꿈꾸면서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적도 있었지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국경을 건너고 사람들이 대화하고 끌어안기 전까지는 한반도는 그저 슬프고 작은 섬일 뿐입니다. 아직도 비바람 견디어내며 기적소리 울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녹슬어가는 기관차의 뒷모습은 볼 수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님과 제가 눈감는 날이 오면 그 때는 서로 만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땅 위에 아프도록 선명하게 그어져있는 휴전선이 없는 하늘에서 만나는 건 모든 것을 던져가며 원했던 우리의 젊은 날이 너무 아쉬잖아요.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에게도 이런 편지를 쓰며 아파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형님! 안됩니다. 현실에 지치고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감이나 숙명적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

리에게 남아있는 젊음이라는 큰 원동력으로 의미있는 일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니, 이젠 세상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주변인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다 되어가는군요. 벌써 스물이 내일 모래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는 내년이면 형님과 좀 더 성숙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허허 웃으며 서로가 그지 이해하는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거름을 만들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형님!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1998년 어느 봄날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났다.

벌써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이 되어간다. 겪어보지 못했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은 없지만 다만 안타까운건 점점 더 깊어가는 상처를 보면서 치유하기 힘들어지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통일에 관한 표제를 가진 행사가 치루어질 것인가? 부치지 못하는 편지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쌓여만 간다.

광주북한관

시부문

초 등 부

풀어 봤어요/유시화 -----39

중 등 부

나는 호랑이로소이다/김경은 -----40

고 등 부

별아래 하나되어/박유나 -----41

산문부문

초 등 부

일곱 손가락/나보람 -----42

중 등 부

북으로 가는 소들과 돈돌날이/이경은 -----44

고 등 부

우리는 하나/한현정 -----47

물어 봤어요

유 시 화

금호초등학교 5학년

밤하늘이 밝은 날에
달님에게 물어봤어요
통일이 언제 되고
이산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달님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밤하늘이 어두운 날에
별님에게 물어봤어요.
이산가족은
통일이 되는 날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낮 햇살이 빛나는 날에
햇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 동포를
만날 수 없냐고
햇님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낮 떴마른 날에
구름님에게 물어봤어요.
언제쯤 휴전선이
치워지느냐고
햇님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통일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 동포들이
마음을 열 때 통일이 되나봐요

나는 호랑이로소이다

김 경 온
중앙중학교 2학년

나는 호랑이로소이다
백두의 정기를 이어 받아
이 땅 한반도에서 태어난
5천년 묵은 호랑이로소이다

지금 비록
잔인한 철조망에 허리가
두 덩이로 끊어져
흥망의 기로에 섰건마는
내 이 땅의 정기를 이어받은
호랑이 중에 왕이로다

내 지금
혈통이 끊기고
심장의 박동이 희미해지건마는
이 땅, 이 물은 떠나서
살 수 없는
한반도의 호랑이로소이다

내 태백의 맥을 짚어
백두에서 내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 날만을 기다리는
호랑이로소이다

내 허리가 풀려질 때
우렁차게 '어흥' 외쳐보고 싶은 것이
이 호랑이의 바램이랴오

별아래 하나되어

박 유 나

광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하나가 둘이 됨은
잠깐일 줄 알았건만
어느덧 아픔으로
50년을 지나왔다.

나 지금 하나였던
그 때를 떠올리며
멀다던 북녘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질게 깔린 어둠 위로
흔들리는 저 별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날의 영혼인가

그 날을 되새기듯
반짝이는 저 별들은
어느새 슬픔 되어
내 불 위를 흘러간다.

이제와 저 별들이
유난히 빛나 보임은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아쉬움의 탓이런만

이젠 저 별빛아래
하나 되는 곳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마음껏 웃고 싶다.

일곱 손가락

나 보 략

월산초등학교 4학년

5월 마지막 일요일 우리 가족은 모처럼 외가의 고조 할머니를 뵈러 목포 큰 외할아버지댁에 갔다. 그날이 외고조 할머니의 90회 생신이라 친척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 하세요?”

“어서 오너라. 우리 보람이 많이 컸구나.” 반갑게 맞아 주시는 큰 외할아버지와 할머니, 고조 할머니께 나와 동생은 큰절을 올렸다.

웬지 많이 수척해지신 고조 할머니께서는 연세 탓인지 너무 오랜만이라 그러신지 우리를 잘 알아보지 못 하셨다.

“누구나?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어머니, 셋째 외손주들이잖아요.”

큰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고조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 거리셨다.

나는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나를 몰라보시는 할머니가 야속하기도 했다. “이해 해라. 할머니께서 이제 많이 늙으셨나 보다.”

할아버지께서 내 어깨를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셨다.

우리 외할아버지의 형제는 모두 7남매이다. 그중 외할아버지는 셋째이신데 지금은 7남매 중 여섯 분만 생존해 계신다. 넷째가 되시는 작은 외할아버지께서는 6·25 피난 때 그만 돌아 가셨다고 한다. 그때 나이가 12세였으니까 아마 내 나이와 비슷하셨나보다 이리 저리 피난 다니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서 40°C가 되가는 열에도 약 한번 써 보지 못하신 채 그렇게 돌아 가셨다고 한다. 그때부터 고조 할머니께서는 매 식사 때마다 작은 외할아버지의 밥을 담아 윗목에 놓아둔다고 하셨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고조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었다. 7개의 손가락을 세고 또 세어 보시고 큰 외할아버지는 치매 증세라고 하셨지

만 나는 할머니가 참 가여웠다. 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까?

통일! 통일! 통일!

이것만이 우리 모든 국민이 슬픈 고난 속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길인데…….

머칠진 정주영 할아버지가 물고 가신 500마리의 소떼와 맞바꾼 금강산 개밭의 희망도 잠시, 동해 앞바다에 떠오른 북한 잠수정이 웬 말이란 말인가?

정말 북한은 양심도 없나 보다.

매년 6월만 되면 사람들은 그 비참했던 기억과 잃어버린 이산가족 찾기로 정신이 없다. 과연 21세기가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까?

오늘은 6·25 기념일이다.

하늘도 그 슬픔을 아는지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비가 모든 슬픔을 씻어 내려 버리고 밝은 새 아침에는 희망의 소리가 들렸으면 한다.

통일이라는 희망의 소리가…….

북으로 가는 소들과 돈돌날이

이 경 은
상무중학교 2학년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모래 칭산에 돈돌날이요 모래 칭산에 돈돌날이요…….

해마다 늦은 6월이 되면 북한산 기슭에서는 실향민들이 모여 '이북 5도민회의'란 행사를 연다. 나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실향민이셨기 때문에 서울에 살았을 땐 아버지를 따라 매년 참석했었는데, 행사가 끝날 때쯤 '돈돌날'이란 민요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가사도 쉽고 흥겨운 노래여서 나도 모르게 어른들을 따라 어깨춤을 추곤 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선 참 이상하게도 춤을 추시면서 자꾸만 우셨다.

“아빠, 저 할아버지 할머니께선 왜 울어요? 노래는 흥겹기만 한데…….”

“응, 그건 지 민요의 '돈돌'이란 단어의 뜻과 관련이 있지.”

“돈돌? 돈돌이 무슨 뜻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감이란 뜻이야.”

“어떤 제자리?”

“지분들의 고향 말이야. 지분들께선 고향에 가고 싶어도 휴전선 때문에 가실 수 없잖아.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 노래에 모두 실어서 부르시는거야. 흥겨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시면서 우시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했지만 그때는 어려서인지 이해가 잘 안됐다. 휴전선 때문에 북한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렵듯이 듣긴 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향인 광주에 갈 수 있었던 나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몇 해 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에게 큰아버지가 한 분 더 생기게 된 것이다. 김해에서 찾은 그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오래란 말에 통곡을 하셨다.

“아버지!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지랑 같이 북에 계신 어머니를 뵈고 가서 야지요!”

“북에 계신 어머니? 그럼 큰아버지의 엄마는 우리 할머니가 아니란 말야?
정말 복잡했다. 10년이 넘도록 보지 못했던 큰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일과 그 큰
아버지의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 머릿속을 혼잡하게 뒤엎켜
놓았다.

“아빠 저분 진짜 우리 큰아버지 맞아요? 왜 북에 계신 어머니라고 해?”

“큰아버지가 맞지 왜 안 맞겠어. 할아버지께서 두 번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
씀을 하신거야.”

“두번? 왜 두 번하셨는데?”

“응. 그건 말이야…….”

아버지께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북청 물장수’로 유명한 함경남도 북청이었다.”

북청사자놀음과 맛있는 동태식혜의 고향인 북청에서 할아버지께서 첫 번째 할머니
와 함께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셨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평
화롭던 할아버지의 가정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서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으실까봐 큰아들만 데리고 피난을 오신
거야.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보자고 하시고는.”

하지만 휴전선이란 장벽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가족을 찾기는 커녕 고향 땅도 못
밟아보고 눈을 감으셨다. 게다가 전쟁 중에 데리고 온 아들마저도 잃어버리셨다.

그 아들이 바로 김해에서 찾은 큰아버지였다. 휴전선 때문에 온 가족을 잃고 전
쟁 때문에 하나 남은 피분이 마저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지금의
우리 할머니와 결혼하시고도 솔로만 세월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다시 찾은 아들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정말 아
쉬워요. 통일만 빨리 됐어도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진 않았을텐
데…….”

“그러게나 말이다. 통일이 뭐 그리 어렵다고 이직까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처럼 통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50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우리는 북쪽에서 같은 핏줄인 북한인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
식을 듣고도 다른 국가들보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덜하다.

이식이 심어질 수 있는데도 통일을 향한 시계는 너무 더디 가는 것 같다.

며칠 전 서울에 계신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다. 올해 군민회의는 북한산이 아닌 임진각에서 열린 예정이니 꼭 참석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날 뉴스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소매를 물고 북한에 간다는 소식을 전했다. 북한으로 가는 소들과 이북 5도 민 회의. 그날 밤 내 꿈속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돈뎀날이를 부르며 춤을 추셨다. 통일을 향한 긴 소매들의 행렬 위에서…….

올해 가을쯤이면 북한으로 가는 유람선이 개통된다고 한다. 나도 그 유람선을 꼭 타보고 싶다. 그래서 북청에 있는 친척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요즘 북한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나라 김순권 교수님의 '슈퍼 옥수수'와 시원한 북청의 물을 먹고 마시며 오랜 세월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들을 씻어내릴 수 있게 말이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시간표이며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 통일의 시간표를 이루는 일에 정주영 회장의 소매와 김순권 교수님의 슈퍼 옥수수처럼 나의 글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북청의 친척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한 현 정

나주고등학교 3학년

하늘이 운다.
그날의 아픔 수 십 년이 흘러도
씻겨지지 않기에
바람이 분다.
휴전선 너머 낮은 땅에 묻은 한이
너무 많아 핏빛 세월들-
그러나 핏빛 세월 여전히
철조망에 걸려 있고 뜻 모르는
비둘기 한 마리만 이쪽 저쪽을 난다.
온 가슴 다 모아도
무너지지 않는 장벽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나라가 분단된지도 어언 50년.

50여 년이 흐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 왔는가? 한 민족 이기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지금, 우리는 철조망을 경계로 긴장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분단 국가였던 독일도 몇 년 전에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했는데, 과연 우리 나라는 몇 년이나 지나야 한반도 허리에 꽃힌 길다란 철조망을 깨끗이 치울 수 있을까?

6·25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얻은 '조국 분단'. 항상 6월 이때쯤이 되면 이북에 두고 온 동생이 보고프다며 눈물짓던 할머니.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가로 막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가? 서로를 외면하고 서로를 살신하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이젠 달라져야 한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냉담한 태도를 고수해 왔던 북한도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몇 달전 한 신문에서 우리 나라가 CF를 북한에서 찍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동안 남북 회담도 미루어 오던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금강산에서 남북한 연예인이 함께 CF를 찍는다니 정말 뜻깊은 일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2년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북한의 유도 선수 '계순희'가 일본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하자 다같이 기뻐하며 환호했던 모습을~.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한이 하나되어 탁구를 치던 모습을~. 우리는 작지만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하나됨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전 뉴스에서 현대 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를 물고 고향, 북한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결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철조망을 누른 황소떼들도 지랄하게 쉽게 넘는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꼈을까? 아마도 그날은 우리 모두가 트럭에 실려서라도 북한을 갈 수 있는 누런 소떼들조차 부러워 했을런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일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에게 통일의 작은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나는 거기에서 작은 동포애를 느꼈다. IMF라는 급작스런 상황에 힘든 우리. 가뭄 등 기상이변 등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비록 넉넉하지 않은 지금의 우리지만, 한 형제로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은 '어려울 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 한 형제의 마음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심정. 몇 년전 나는 가족과 함께 통일진망대에 가 본 일이 있다. 철조망을 사이로 손만 뻗으면,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북한을 앞에 두고 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할머니는 끝내 소리내어 흐느껴 우셨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동생이 보고프시다며…….

북한을 앞에 두고 바라보기만 하는 나도 가슴이 아련히 지려왔는데, 이산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했으랴. 며칠전 정부에서는 이산 가족 만남을 활발히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다녀온 정주영 회장은 내년에는 김정일의 동의로 금강산 개발과 함께, 금강산 구경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설레이는 일인가?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라

며 지금까지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불러왔다. 하지만 이제 서로 꼭 껴안고 통일의 기쁨을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이다. 단군의 자손인 한 뿌리의 한 형제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동안 우리앞에 쌓여있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날이 오면 나는 한반도에 찌렁찌렁 울러 퍼지게 노래하리라. 뜨거운 눈물 사이로 두손 꼭 잡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 됐노라며' 통일의 노래를…….

청주북한관

시 부문

초 등 부

우리는 하나/김윤선 ----- 53

중 등 부

흔적/박아름 ----- 55

고 등 부

태극기/이인혜 ----- 57

산문 부문

초 등 부

학습 발표회/장현희 ----- 59

중 등 부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유진 ----- 62

고 등 부

하나라는 이유로/백소라 ----- 64

우리는 하나

김 윤 선
분평초등학교 5학년

도덕 시간
토끼 모양 지도 위에
빨간 크레파스로
굵은 금 하나를 긋는다
우리 민족 허리
숨막히게 조르는
뼈알간 선 하나.....

경도에도 없고
위도에도 없는
우리 땅에만 그어진
뼈알간 선 넘어 저쪽
반쪽 우리가
배고픔에 못이겨
힘겨워 한다.

찌든 가난 씻으며
갈바람 산새 소리
친구되어 날아온 너
힘겨워 히는 널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찌든 가난 씻어 주려
꿈을 안고 떠난 통일 소
승복이 남기고 간
자유의 씨앗이
통일의 싹이 되듯
우리의 반쪽이 사는
북녘 땅 방방곡곡
파릇파릇 돌아나라

우리는 황해를 이루는
넷물이 되어야 한다
힘들여 가꾼 땀방울도
50여 년 흘린 눈물 방울도
하나로 위어서
통일로 가는
넷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
분단의 아픔 딛고
몸과 마음 딛고
몸과 마음을 부딪혀
눈물로 얼룩진
하나의 입술 되어
따스한 입김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요.

흔 적

박 아 름

문의중학교 1학년

내 작은 가슴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들은
나를 더 슬프게 합니다
새벽의 자취를 감추지 못한 이른 햇살사이로
흙내음 문썩 풍기는 논둑길 따라
수많은 땀과 정성을 차곡히 묻어 두었던 곳

그러나 이제는
꿨어진 허리 사이로
가까이 있어도 내디딜 수 없는 곳이기에
아득한 추억만이 고향 길을 향합니다.

내 작은 가슴속에 잔잔히 일어나는 감동은
나를 더 애타게 합니다
하늘을 맘껏 수 놓은 저녁 노을 사이로
사람들의 따스한 인정과 구수한 향내가 가득하던
끝 없는 양보와 사랑만으로 가득하던 곳

그러나 이제는
갈라진 땅 사이로
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는 곳이기에
북받치는 그리움만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내 작은 마음속에
묵묵히 묻어왔던
내 여린 마음속에
되뇌어 떠올리던 수많은 추억들을
그리움만으로 남기고 싶지 않기에

내 작은 가슴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아픔과 고통으로 막아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작지만 큰 나의 바람이
그곳에서 고요히 숨쉬길 원합니다.

태극기

이 인 혜

일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날카로운 창끝의 붉은 선혈이
우암산 기슭 진달래로 피어나
언젠가
저 높은 백두산 가까운 곳까지
자연스레 깃어들어
호랑이의 뜨거운 심장을
고동치게 할 때에
저기 저 손에 잡힐 듯한
임진강 푸른 강물이
언젠가
이 투명한 무심천에
자연스레 흘러들어
남쪽 바다
찬란한 푸르름을 더해 줄 때에

백색 징결한 지고리의 한이
칠조망 위에 소리없이 쌓여
언젠가
할머니의 흰머리에

자연스레 내려앉아
모든 이의 시퍼런 가슴을
치유해 줄 때에

다시 태어나리라.

새하얀 저고리의 한을
푸르른 임진강물로 씻어내고
붉은 호랑이의
다시 뛰는 심장 박동 소리를
우리를 옹아맨
우리클 줄라맨
바로 그 위에
하나의 맘으로
펼럭이게 하리라

우리는
다시 태어나리라.

학습 발표회

장 현 희

분평초등학교 5학년

지난 10월 23일은 우리 학교가 처음 열게 되는 학습 발표회 날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과 우리들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 동안 정성들여 만든 그리기와 시화작품이 울다리 위에 나란히 진열되었다.
엄마들이 하시는 바자회와 작품 전시회 그리고 학예회는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다.

현관 앞 가득히 서 있는 국화들은 우리 학교를 더욱 축제 기분으로 만들었다.
우리반은 '별주부전' 연극을 하기로 하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였다.
누구 한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이 우리반 친구들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이 정말 값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

우리들은 신이 나서 우리 손으로 무대 장치도 만들고 가면도 만드느라 손과 옷은 온통 물감 투성이고 얼굴엔 구슬땀이 흘렀다.

우리반 차례가 가까워지자 공연히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은 두근두근 하여 심장이 멈추어진 것처럼 겁이 났다.

친구들의 얼굴엔 꼭 성공적으로 해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였다.

우리반 전원이 힘을 모아 한 연극을 보신 어머니들께서 모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일들은 씻은 듯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천만 이산가족들이 50여 년 동안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하던 고향 땅을 밟아 보고 사천만 온 겨레 두 손 모아 기원하던 통일도 머지않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27일에는 현대그룹 명예 회장님이신 정주영 할아버지께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50여 년 동안 이산가족의 아픔이었던 휴전선을 넘어 통일 소 오백 한 마리를 이끌고 북녘 땅을 밟으셨다.

이산가족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 보고 싶어하던 고향땅 통천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금강산에 가는 유람선이 뜨게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아름답다는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갈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멀기만 한 통일의 그날은 언제 일런지…….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리틀엘젤스' 어린이들이 평양을 방문한 사진들이 나왔다.

북한 동포들이 목이 메어 가장 감명 깊게 부른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라고 하였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목이 터져라고 부르던 통일의 노래는 손자인 우리 어린이들은 부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는 요즈음 IMF라 매우 살기가 힘들다.

우리 아빠도 여러 해 동안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 두시게 되었다.

보다 못하신 엄마께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신다.

울 봄부터 저녁밥을 짓는 것은 내 몫이 되었다. 텔레비전을 보면 실직을 당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가 전보다는 좀 고생스럽게 살지만 북한 어린이들에 비하면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든다.

통일전망대를 보면 북한의 어린 꼬마들이 먹지 못해 기운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먹기 싫은 것은 선생님 몰래 잔반통에 버린 일이 생각난다.

같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인데 남과 북은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지민 학습발표회 때 했던 바자회에선 우리들이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이 수없이 많이 모아져서 옷 한가지에 500원씩 사서 입었다.

그 옷들을 보니까 북한 친구들 생각이 났다.

정성들여 모은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라도 따뜻하게 입을 옷 한벌이라도 사 보내

고 싶다. 이제 머지 않은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아껴 쓰고 지축하는 지혜를 배워서 부끄러운 IMF의 긴 터널을 벗어나야 하겠다.

지난 여름방학때 아빠 차를 타고 강원도 삼척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동진'에 들러 가자고 하셨다.

칠조망으로 둘러싸인 해변을 걸어 올라가니 비행기처럼 커다란 것이 있어서 너무도 이상하여 아빠께 여쭙어 보았다. 그러자 아빠께서는 '지것이 간첩이 타고 온 잠수함이란다' 하시는 아빠의 말씀을 듣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북한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간첩선을 보내다니 기가 막혔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참고 사랑을 주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통일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진 사람들

이 유 진

원봉중학교 2학년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 잊고 있다가, 문득 깨달으면 새삼스러워 한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내 옆엔 누군가가 있다. 내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난 어딘가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평소에 잊고 있는 우리들, 전쟁과 헤어짐을 직접 겪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줄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풍족한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안타까워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워 온 말이다. 어쩌다 문득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면 기도를 하곤 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북한은 친절하게도 손님을 보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해안의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도, 군대의 작전에 빈틈이 있어 그 손님들을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그들로 인해 알게 된다. 고맙기도 하지…….

지금은 한 개의 나라라고 해도 예전엔 수많은 나라로 갈려져 있었던 나라들이 많다. 우리 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그렇고 가까운 나라 중국은 정말 심했다.

그들이 나라를 통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통일이라기 보다는, 영토 빼앗기 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다른 점은 남들에 의해 갈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던 때문이라, 안타까우면서도 억울하다. 사실 우리를 빼고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통일을 바랄까? 미국도 군대 빼기 싫고 일본과 중국은 간섭할 일 없어 땀을 것이다. 역시 우리가 해결할 일이고, 그 "일"을 지금은 학생인 사람들이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1C가 청소년의 것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내가 9살이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북한에서는 거지를 몽땅 잡아서 죽이고 집에서 무슨 말을 해도 공산당이 모두 듣고 공산당이 싫다는 얘기를 하면 가족끼리도 서로 신고한다는 것이었다.

그 땀 사실인줄 알았지만 지금은 웃음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 그다지 정확히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잊지 못하는 풍경이 있다. 통일전망대에 갔는데 비가 많이 와 바다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납게 파도치는 바다의 흰 물결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 배를 타고 떠나고 싶었다.

가지 못할 곳이라 더욱 아름다워 보인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 갈 수 있을 곳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져본다. 금강산도, 백두산도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이 사회를 움직일 만큼 성장하게 되면,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 기필코 통일을 이루겠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말이다.

하나라는 이유로

백 소 라

금천고등학교 1학년

“오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단과 소 501마리가 북한을 향해 떠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일은 특히 북한의 김정일과 정주영 회장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의 내용이다. 기아에 히터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서산에서 북한으로 소들의 긴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엔 특히 김정일과 정주영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얼마전 금강산 유람을 성사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을 보고 사람들은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흥분하고 있다. 정말 휴전 이후 우리 나라의 영원한 과제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민족의 영원한 과제인 통일. 지금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 민족이 통일된 국가가 아닌 서로 다른 국가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각기 살아가진 않는다.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 국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분단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이제 그 분단을 다시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분단을 다시 통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것을 해낼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인 것이다. 지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사람도 우리이다. 그런데 요즘의 우리들에게엔 ‘통일’이 절박하지도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게 인식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통일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뿐인 것이다. 얼마전 한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물론 주제는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우리 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어른들이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의 영원한 과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아이들의 정 반대적인 행동에 우리의 어른들은 놀라움 따름이었다. 나 역시 놀라웠다. 당연시 여겼던 통일. 나에게엔 너무나도 당연했던 통일이 내 또래의 친구들에게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나……. 난 이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젠 내가 이 친구들보다 잘나

서도 아니고 이틀보다 푹푹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또래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나의 가슴 뭉클했던 경험을 이야기 해주고 그 느낌을 같이 경험해 보고 공유하고 싶어서이다. 지난 여름방학 IMF한파로 인해 여름 휴가는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신 채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잠시 시간을 내셨다. 오랜만에 난 시간이라 어딜 갈 것인가를 놓고 한참을 고민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께서 통일전망대를 가자는 제안을 하셨다. 그 제안에 나의 첫마디는 '싫어요'였다. 겨우 얻은 휴일에 고작 통일전망대라니……. 난 바다나 산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의견은 무시됐고 우린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6시간의 긴 운진 끝에 간 통일전망대, 난 그때까지도 계속 그 장소로 온 것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투덜거림은 사라지고 웬지 모를 뭉클함에 젖어들고 있었다.

안내자의 설명으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와 북한의 지형, 바로 앞에 있는 그 땅이 우리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는 느낌,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도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못하는 현실, 갑자기 슬퍼지기 시작했다.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주민을 보게 되었다. 그들과 단 한번의 대화도 만남도 없었지만 너무나 친숙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다. 손에 잡힐 듯한 북한 땅을 바라보기만 한 채 돌아오던 길, 난 실향민도 아니고 북한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나 가보고 싶고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그 느낌, 슬픔과 아쉬움.

그 느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지울 수 없었던 그 느낌, 내가 지금까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유쾌하지 못한 여행으로 남고 있다. 난 이 여행에서의 느낌을 내 또래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도 경험을 해 봐야 한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이 경험을 권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경험에 의한 느낌을 공유하자고 말하고 싶다. 공유하자. 그리고 생각하자. 왜 그렇게 느꼈을까? 결론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을 서로 이야기해 봐야 할 것이다. 나의 결론은 이렇다. 그런 느낌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한 민족 한 핏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중이나 혹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느낀 것이다. 결국 결론은 우린 하나라는 것이다. 둘이 아니라 하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것이다. 통일의 이유. 그건 우린 하나란 점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모든 또래 친구들에게 결론지어주고 싶다. 우리가 공유한 그 느낌 때문에 우린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제주북한관

시 부문

초 등 부

할아버지의 적금 통장/조지연 ----- 69

중 등 부

남이 오시면/김영희 ----- 70

고 등 부

엄원/박지혜 ----- 72

산문 부문

초 등 부

할머니의 보물/문지은 ----- 74

중 등 부

세계속의 분단한국/김민희 ----- 76

고 등 부

통일을 부르는 소리/김윤정 ----- 78

할아버지 적금 통장

조 지 언

남광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할아버지
적금 들었다.
2년만기
200만원 짜리

아버지 주신 용돈
고모가 주신 용돈
모두 털어
은행으로 달려가셨다.

입만 열면
말하는 고향
맛있는 음식만 봐도
찾아가는 고향

적금타면
금강산 간다고
140만원
여행비 내고
60만원
선물사고

통장보며
웃는 할아버지

고향 갈 꿈에
부푼 할아버지

내 용돈 드려야지
세뱃돈도 드려야지.
할아버지 적금통장
가득차면
금강산 가는
할아버지
배웅해야지.

님이 오시면

김 영 희
세화중학교 2학년

오십여년 전,
1주일 내에 돌아오마 하고
새색시였던 고운 나의 손을
힘껏 잡아 주시며
못내 걸음을 옮기셨던
그리운 나의 님이여

당신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맞을 준비를 하렵니다.

그날에 당신과의 굳은 약속을 위해
단 한 번 입었던
색동저고리를 다시 마름질하겠습니다.

혹시나
오시는 길이 멀어 늦어질까
포장이 안된 도로를
힘차게 달려오실 당신을 위해
새 신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단했던 당신의 몸을 녹여드릴
안방의 아랫목을 따뜻하게
덮혀드립니다.

오시는 걸음 걸음
허위허위 오실
기운없는 당신을 위해
맛있는 김치도
준비하렵니다.

그러하오니
남이시여
모든 멍에를 다 버리고
저에게로 어서 어서 오십시오
그날에 당신과 같이 심었던
오래된 밤나무 밑에서
고단했던 우리의 긴 노래를
환희의 노래로 마감하렵니다.

엄 원

박 지 혜

고산상업고등학교 2학년

꽃씨는 꽃씨 가득 엄원을 품고 날아 올라
자유로이 북녘땅, 남녘땅위에
한떨기의 꽃을 피워내고

새는 힘찬 도약의 날개짓으로 땅을 박차올라
자유로이 북쪽 하늘, 남쪽 창공위에
오늘도 평화로운 비행을 즐긴다.

허나
우리의 가슴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이기에
우리네 가슴에 핀 꽃은 이미 얼어 죽고
새는 보이지 않는다.

꽃이 피지않는 터는
더 이상 꽃의 터가 아니기에
새가 날지 않는 하늘은
더 이상 새들의 하늘이 아니기에

찬 바람이 휘몰아 칠 무렵이면
한반도의 허리깊이 패여버린 구멍으로
빠져리게 엄습해오는 습한 추위를 끝내 못이겨
한반도는 흐느껴 울고 있다.

적화통일의 망상도,
총을 맞대야 할 그 어떤 적개심도 없는,
믿음과 동포애만이 가득한
행복의 그날을 꿈꾸며

이질감에 젖은 한반도의 눈물샘을 잠재워줄
크디큰 믿음만이 존재하기를……

부디
가식없이 한반도를 감싸안는 꽃을 닮게 하소서.
자유의 희열을 즐기며 비행하는 새를 닮게 하소서.

할머니의 보물

문 지 은

인화초등학교 6학년

우리 집에는 할머니께서 무척이나 소중히 간직하시는 물건이 있다.

사람들은 무슨 값비싼 물건인가보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가장자리가 닳고 닳아서 불품없는 현 바가지이다.

난 할머니께서 왜 것처럼 현 바가지를 소중히 간직하시는지를 몰랐었는데 지난 6월에야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머니와 엄마께서는 집안 구석 구석 청소하고 계셨다. 나도 한몫 거들어 드리려고 젖은 걸레를 가지고 할머니 방을 깨끗하게 닦던 중 그 현 바가지가 눈에 띄었다. 난 할머니께 달려가서는

“할머니, 할머니 방에 있는 그 현 바가지 저 주시면 안되요? 내일 미술시간에 바가지 공예를 하거든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옆에 계시던 엄마께서는

“그게 어떤 바가지인데 그런 소리를 해!”

하시는 것이었다.

“어떤 바가지지요? 가장자리가 다 남아버린 고물 바가지죠, 할머니 그거 저 주시는 거죠 네?”

가만히 계시던 할머니께서

“에그 내가 살아서 고향집 다시 찾아가기는 다 글렀지. 지은아, 그 바가지 가져가서 미술시간에 바가지 공예나 잘 하려므나.”

하시는 것이었다. 난 깜짝 놀랐다.

할머니께서 것처럼 아끼시는 바가지가 바로 북쪽에 있는 할머니 고향집의 바가지라니 처음 듣는 소리였다.

“지은아, 그 바가지는 동일이 되면 이 할미가 다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래골 샘물을 떠서 조상님들의 산소에 바치려고 했던 거란다. 근데 언제 동일이 되겠니?” 하시며 체념하시는 표정이셨다.

조금 있다가 저녁상을 앞에 놓으신 할머니께선

“그 바가지가 피난시절 우리 식구들의 물그릇도 되고 밥그릇도 되었지.” 하시며 바가지에 얽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개발을 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이 흘러나왔다.

“할머니 우리 나라의 통일도 그리 멀지 않았나 봐요.”

“그렇지만 내 생전에 고향 찾아가기가 그리 쉽겠냐?”

할머니께선 기쁜 표정이면서도 쓴 웃음을 지으셨다.

“할머니, 저, 이 바가지 미술시간에 쓰지 않겠어요, 통일이 되어 할머니 소원을 이루실 때 까지 말이예요.”

바가지에 얽힌 깊은 사연을 알게 된 나는 바가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짝 가셨다.

나는 바가지 걸면에 '통일 바가지' 라고 쓴 다음 니스칠을 해서 할머니께서 늘 보실 수 있는 곳에 못을 박고 걸어 놓았다.

“통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온 국민이 통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도 서독과 동독처럼 통일을 맞이 할 수 있을 거야.”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파고 든다.

요즘 난 할머니 방에 걸린 '통일의 바가지'를 보며 마음 속으로 기도한다.

'어서 통일이 되어 우리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다.

그리고 우리 식구 모두 통일이 되어 할머니의 고향집에 다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계속의 분단한국

김민혁
한림중학교 2학년

손바닥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무엇을 고정시킬 때 쓰는 볼트도 너트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젓가락도 두 개고 가위도 손잡이가 두 개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두 개의 것이 하나의 힘을 발휘할 때 그 빛을 낸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도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자그마한 반도 국가이면서도 한심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 바퀴 하나뿐인 자전거이며 짝이 없는 신발인 셈이다.

분단 반세기 동안 따로따로 잘 살아왔는데 통일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는 지금 상태로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통일을 하느냐 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간 가계부를 보면 국방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라의 발전에 쓰일 돈인데도 허무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니 선진국의 속에 끼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행기나 여러 가지 산업, 무역, 교통은 북한에 의해 시간과 돈이 쓸데없이 새어나간다. 그리고 학술,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유명한 국보급의 문화재들이 어두운 곳에서 거래되고 있고 북쪽의 푸른 강산은 외화벌이에 혈안이 된 북한 정부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어가고 있다. 이 외의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한가지 이득을 보기엔 양쪽 다 손해가 크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민족적 과제이다.

이처럼 통일은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정치, 경제가 어수선한 지금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저 흐르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세월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껏 북한을 적으로 삼아 흐리부지 통일을 진행하고 닥쳐온 IMF 한파에 침체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은 험난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짐차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가까이 있는 중국은 천가지 표징이 있는 동아시아 세계 진출의 주요 도시인 홍콩을 얼마 전 되돌려 받고 풍부한 자원과 인력에 힘입어 서서히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

는 등 찬란했던 한 문화를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를 IMF를 비껴가 순항을 하고 있고 유럽은 유로화로 달리에 지향하며 서로 간의 걸속력을 제차 다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통일에는 성급히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서독도 통일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었다. 우리도 서독과 같은 자세로 통일에 임해야 한다. 이번에 현대의 명예회장 정주영의 방북과 금강산 유람선은 가물었던 통일의 꿈의 단비가 되었다. 그래서 '북한과 함께 같이 달려야 세계 속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제껏 우리가 물로 나뉜 지 반세기 동안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우리의 뒤에서 버텨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걸프전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을 넘기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에 싸울 상대가 없어지자 칼을 내려 놓았고 그 칼은 녹슬면서 미국도 종이 호랑이로 진락 해가고 있으며 세계 일강들은 친한 것처럼 손을 내밀지만 진정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준 적은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여서는 안 된다. 1988년 올림픽 때의 열기와 화합으로 통일을 풀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동서로 사상적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정치는 말이 많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속사정을 제대로 정리하고 통일에 힘써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과거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의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주역은 건강한 통일한국이 되었음 한다. 또 우리 나라의 태극기의 태극무늬 색깔이 하나가 될 날을 기쁘게 본다.

통일을 부르는 소리

김 윤 정

표선상업고등학교 2학년

1998년 여름

7천만 동포의 시선을 한데 모이게 했던 정주영 회장의 북한 방문은 통일의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북에 간다는 보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했고 환승 장소에는 북에 가고파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게 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 어린 적 아버지의 소를 판 돈 70원을 들고 월남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70원짜리 소 한 마리가 오백마리가 되어 돌아간다면 눈시울을 적시던 정주영 명예회장. 이번에 가면 꼭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그는 7박8일의 북한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의 찬사를 받으면서 떠났던 정주영 회장이 이제는 두 번째 방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으로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키고 이제 또 다른 500마리를 끌고서 또 한번의 북한 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선뜻 소 1000마리를 기증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정주영 회장의 이런 행동이 소득을 위한 것이라 하여도 자랑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더군요, "내가 지 소들 중에 한 마리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만……"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북에 가고 싶었다면 소가 부럽겠습니까?

그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해 온 소는 턱스럽고 부지런하기에 많은 사랑을 받더니 이제는 그 은혜를 배로 갚는구나 하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이런 소의 턱스러움을 본받아 조금은 화해하기를 바라며 이제 다가올 21세기에는 이런 아픔이 끝나길 바래 봅니다.

이번 정주영 회장의 방문 또한 큰 성과 있길 바라며 이제 분단국이 아닌 하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가올 21세기에는 과거의 아픔을 모두 없애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또한 이제 과거의 잔재를 타파하고 지금 실정을 정확히 받아들여 서로 화해하는 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고도의 식량난을 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도록 세계로 뻗어나가 하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도착할 소 오백마리 역시 그 전의 오백마리와 함께 북한의 식량난을 헤쳐 해 주길 바라며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대를 이어가며 우리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바래 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통일이여 어서 오라.

이 노래를 북한 모두와 함께 손잡고 부를 날을 기다리며 이번 정주영 회장 방문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모든게 하나된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통일의 소리를 외쳐 봅니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북한관안내

경 남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동 485
자유회관 (0551)282-2332~3

고 성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 (0392)681-0885

광 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 (062)525-7722

부 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 (051)808-7960~3

양 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불지구 (0364)481-9021

오두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통일전망대 (0348)945-3171

인 천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자유회관 (032)868-0113~5

임진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0348)952-7575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968-2
자유회관 (064)751-0191

철 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 (0353)455-3129

청 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 (0431)256-5050

통일로 가는 길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연락처: 901-7026~9

발행일: 1999년 2월

인쇄처: 양동문화사 (2266-0892)

